



“저 넓은/법계 속 불회(佛會)에 나아가/감로법우(法雨) 내리기를 비나이다/무명토(無明土)에 깊이 묻혀/번뇌열에 달구어져/선아(善芽)가 말라붙은/중생의 발들을 적시소서/아/보리(菩提) 열매 영그는 날/깨달음의 달 밝아라!”

균여대사의 향가집(鄉歌集)에 실린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의 ‘정전법륜가(請轉法輪歌)’이다.

전남 나주 덕룡산 기슭에 자리한 불회사(佛會寺)의 사명(寺名)에는 보살이 부처님 전에 나아가 법을 설해주시기를 발원하는 간절함이 깃들여 있다.

기록상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여러 문헌이나 사료 등을 종합해볼 때 불회사 창건주는 인도스님인 마라난타 존자가 확실해 보인다.

마라난타 이후 고려 말에 원진국사가 사세를 크게 일으켰다. 본래 사명 ‘불호사(佛護寺)’가 조선 순조 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듯하다.

불회사 일주문에서 큰 절까지는 500m 가량. 새로 지은 일주문 부근에 도암선사 부도가 있어서 사역을 집작케 해준다.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덕룡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계류가 흐르고 있다. 계류 건너편엔 논밭들이 자리하고, 민가 주위로는 대숲이 둘러있고, 산능선까지는 소나무가 우점하는 혼효림이다.

일주문 왼편으로는 편백숲이 천왕문까지 쭉욱 이어져 있다. 주인의 이야기로는 조성한 지 60년이 넘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30년생 안팎이다. 그 사이에 베어내고 다시 심었는지는 모르겠다.

이 구간에서 관찰된 초본으로는 여뀌무늬를 비롯해 물봉선, 층층잔대, 까실쑥부쟁이, 흰고마리, 잠취, 쑥부쟁이, 미역취, 털머위, 들깨, 논비둘기, 용담 등이 관찰되었다. 특기할 만한 나무로는 이목(異木) 개리(開理)를 이루고 있는 두 그루의 보호수이다. 수령 6백년의 느티나무와 고로쇠나무가 몸을 섞은 부부수(夫婦樹)이다. 덩치 큰 남편 느티나무 뿌리가 수컷의 거시거처럼 부인 고로쇠나무 뿌리 속으로 깊숙이 박혀 있다.

이 구간에는 노부부 돌장승도 큰 볼거리이다. 중요민속자료 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노장승을 역시 임진왜란 후 민간신앙의 불교습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웃한 윤흥사 장승과 마찬가지로 사찰의 수문장으로 존재한다.

사자비 뒤로 불회사의 중창주인 원진국사의 부도가 있다. 사람들이 탁본을 한답시고 탁본에 먹물을 시켜뭇게 묻혀 놓고 갔다. 돌 속에 스며든 먹물은 비가 와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저 상태로 몇십년 몇백년 이 갈 수도 있다. 식자(識者)들의 이기적 몰상성이 개탄스럽다.

진여문 흥예다리 아래 계류는 물이 말라서 갈겨니와 벼들치들이 군데군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계류의 물이 마른 것은 가뭄 탓도 있지만, 절에서 위쪽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서식환경이 더 나빠진 것이니 절에서 물고기의 생태환경을 수시로 살펴볼 일이다.

## 깊지도 높지도 얇으나 생태적 느낌 좋은 도량



불회사 원진국사 부도탑. 탁본이 탁본 먹물로 시켜뭇게 묻혀 훼손이 염려된다.

근래 불회사는 불사를 하여 가람배치를 쇠신하였다. 대양루의 계단을 오르면 덕룡산을 배경으로 팔작지붕을 한 대웅전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용머리와 내부 천장에 나타난 물고기는 백제 불교의 바다전래설을 암시해주기도 하지만, 환경측면에서는 사찰 화재의 벽사물로 이해된다.

대웅전 뒤로는 인공으로 조성한 숲들이 수종을 달리하며 내화피(耐火樹林帶)를 이루고 있다. 천왕문과 시운당(요사채) 중간 뜰에 서서 대웅전 뒷산을 보면 숲의 빛깔만으로도 내화수림대가 확연히 구분된다.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며 잔디, 차나무, 동백나무, 비자나무, 대나무, 소나무 혼효림이 자리하고 있다. 바라볼수록 멋진 숲이다.

겨울을 성충으로 월동하는 네발나비, 빨나비, 노랑나비, 청띠신선나비 등이 보인다. 늦가을에 보이는

나비들은 거의가 어른으로 겨울을 난다. 하지만, 오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온 나비들은 영하의 겨울이 눈앞에 닥쳐도 요란을 떨지 않는다. 인간과는 달리, 은둔할 곳을 미리 허둥지둥 찾아다니며 집적여두는 일도 없다. 눈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나 나무 틈은 어디든 있다. 가서 죽는 듯이 날개 접고 잠고 견디는 것이다.

불회사 해우소는 수세식이다. 들어갈 때 슬리퍼로



불회사 뒷숲은 다양한 수종이 혼합된 혼효림이다. 산발이 가람으로 번지는 걸 막기위해 내화림을 인공조성한 것이다.

숲길에서 발견되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배설물을 흙으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하지만, 너구리와 같은 개과는 그냥 놔둔다.

불회사가 얇은 덕룡산은 해발 376m에 불과하지만, 산역이 넓고 촌락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서식하는 포유류의 종이 다양하다. 불회사 삼거리인 하평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겨울이면 멧토끼,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삼거리 일주문 아래까지 나타난다고 한다.

비로한 주위로 몇 마리의 직박구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불회사 조류로는 박새, 쇠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직박구리, 어치, 까치, 경 등이 관찰되었다. 시기상 여름철새들은 떠나고 겨울새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비로한을 지나 계곡으로 내려서면 저수지 형태의 계곡보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숲의 모습이 좀 다르다. 인간의 간섭이 절제되어 자연성이 두드러진다. 하층식생도 다르고, 숲을 이루고 있는 수종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다. 소나무에서 활엽수로 천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목본으로는 장년의 소나무가 우점하는 가운데 개웃나무, 붉나무, 팽나무, 검양나무, 누리장나무, 가새팽나무, 왕버들, 비목, 단풍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활엽수가 혼재하는 모습이다.

이 구간의 관목으로는 차나무가 으뜸이다. 불회사의 야생차는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불회사를 창건할 때 중국 강남으로부터 가져와 심은 것이 퍼져서 야생화가 되었다고 전한다. ‘다도면(茶道面)’이라는 지명도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비자나무 숲 아래 넓게 자리한 불회사 차밭은 우리나라 사찰 차밭 가운데 가장 넓다고 한다. 스님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야생차를 돌보고 있다. 불회사가 자랑하는 비로다(樞露茶)가 바로 이 차밭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지역의 초본은 비자나무 숲이 하늘을 가려서 빈약하다. 전남산, 맥문동, 이삭여뀌, 쇠뜨기, 소리쟁이, 꽃향유, 샷갓나물, 미국자리공 등이 보인다.

등산객 출입도 없는 이 골짜기에 외래식물인 미국자리공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저수지 공사 때문이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외래인들이 여러 날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래종들은 자연환경이 파괴된 곳을 희안하게도 잘 찾아서 들어온다.

덕룡산은 깊지도 높지도 않지만, 생태적으로 느낌이 좋은 산사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 원진국사 부도탑 마구잡이 탁본으로 먹물자국 투성이 대웅전 뒤 다양한 수종으로 형성된 내화피 멋진 숲 이뤄 국내서 가장 넓은 야생 차밭에서 비로다(樞露茶) 생산

같이 신도록 되어 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는 것과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가는 것은 이용자의 마음자세를 달리 해준다. 슬리퍼를 신으면 해우소라도 ‘실내’라는 느낌을 준다. 다른 해우소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명부전 옆으로 좁은 산길이 나 있다. 스님들만의 포행길이다. 포행길은 대웅전 뒤 내화수림대를 휘돌아 계곡의 저수지(池)로 내려오는 코스이다. 포행길은 울울창창한 숲길이다. 차나무, 동백나무, 비자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포행숲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비자나무와 동백나무이다. 불회사 비자나무는 어림으로 2천3백 그루나 된다고 한다. 높이가 10미터, 가슴높이 지름이 평균 40센티에 이른다. 이 정도 크기라면 수령이 2백년은 족이 넘는다. 동백숲은 대웅전 뒤로 활처럼 휘어져 조성되어 있다.

이 포행숲에 가끔 너구리들이 나타난다. 배설한 지 몇 시간 안 되는 너구리 배설물이 말랑말랑한 형태로



연리(連理)를 이루고 있는 느티나무와 고로쇠나무



청띠신선나비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각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엔터테인먼트,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유켄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등산회 목련사랑

####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 제1주 11월 30일 - 12월 6일 [17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1월30일[목]	우리절	-	경기광주시 18km
12월 1일[금]	광주시	-	조안면 26km
12월 2일[토]	조안면	-	대성리 19km
12월 3일[일]	대성리	-	가 평 23km
12월 4일[월]	가 평	-	의암역 19km
12월 5일[화]	의암역	-	소양호선착장 17km
12월 6일[수]	소양호	-	양구 광치 74km

##### 제2주 12월 7일 - 12월 13일 [12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7일[목]	광 치	-	원통읍 21km
12월 8일[금]	원통읍	-	용대리 18km
12월 9일[토]	용대리	-	소통령 17km
12월10일[일]	소통령	-	건봉사 18km
12월11일[월]	건봉사	-	죽 왕 21km
12월12일[화]	죽 왕	-	속 초 20km
12월13일[수]	속 초	낙산사	홍련암 15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